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時代를 앞서가자

開校紀念辭



오늘 본 대학교 개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諸君 九지시와 梁性厚 同志회장님, 그리고 이틀 기념하며 계속적인 발전을 다짐 하려고 모이신 敎職員, 在學生, 同門여러분! 이 式典에 임하는 우리 모두는 자랑과 긍지로 가득차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952년 韓國同胞의 격전속에서 教育은 國家와 民族의 現實을 개척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원동력이라는 信念으로 제주항 교 명령당을 빌어서 4개學科 2年制 初級大學으로 그 고고지성을 발아시켰습니다. 그러한 우리 대학이 오늘날 國立綜合大學校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35년이라는 세월이 자연스럽게 해결해준 것이 아니라, 그간 이 대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道民의 노고와 성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월의 눈부신 신록으로 성장한 한라산 기슭에 자랑스럽게 버티고 선 우리 대학을 보고 기뻐하며, 自慰하

고 싶은 심정을 지니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35년전의 이념을 기념하며, 自慰하는 式典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외형적인 發展에 걸맞는 第二開校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大學의 참모습은 그 규모나 체제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칠 줄 모르는 敎授들의 眞理探究와 創造의인 姿勢, 그리고 學生들의 勉學活動이 전폭으로 確立된 그 位置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방향에 대하여 등한히 해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1982年度 本大學이 綜合大學으로 昇格되면서 地域特性을 바탕으로한 世界속에 濟州大學이라는 獨有한 目標을 設定하고, 여러 敎授님들은 이 땅의 어느 敎授보다 더 왕성한 研究와 敎授活動을 전개해 왔으며, 學生들의 勉學태도 역시 어느 大學에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學校에서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 最善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7천여만원의 敎授研究費, 38명의 國內外 敎授研究活動 費, 24회에 걸친 國際 國內 學術大會의 유치와 주관들이 그것입니다. 또한 7천여명의 學生 가운데에 3천 9백31명의 學生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7억 7천여만원의 大學 學費를 減免하고, 24억 2천여만원을 투입하여 中央圖書館을 건립한 것도 勉學 분위기의 造成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노력은 각계 각층에서 상당한 호응과 인정도 받아왔습니다. 이 地方 出身의 企業家, 재일동포 實業家들이 敎授會館, 海洋研究所의 建立들을 贊助하고 있으며, 그이외에도 敎授研究기금 및 학생장학금 지원 도서기증등의 正성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억원 상당의 理工大學 理工館을 착공할 수 있었던 것

도 바로 이런 우리들의 노력과 지향하는 바에 대한 각계각층의 긍정적인 호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大學의 理念과 目標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며 完成이라는 말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정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大學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存在로서 살아 움직이는 精神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모자람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義務일 것입니다.

大學의 역할과 기능은 그 大學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에 단 하나의 大學이라도 참다운 大學이 存在한다면 그 나라 그 國民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時代에 단 하나의 大學이라도 그 時代를 앞서가는 大學이 存在한다면 그 時代는 새로운 文化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親愛하는 一萬 我羅人 여러분!

그리고 우리 大學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發展을 기원하는 내외 귀빈과 동문여러분!

大學의 存在意義는 그 大學의 命運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大學의 문을 나서서 순간부터 그 연대감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함으로써 大學과 大學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식의 영광이 곧 父母의 榮光이듯, 大學은 大學인의 榮光을 愛情어린 눈길로 지켜볼 것입니다. 大學人 여러분도 本 濟州大學校를 世界속의 大學으로 發展시키는데 모두 힘을 합칠때 여러분 자신들의 삶 자리가 확고해 진다는 信念을 가지시다. 그리하여 우리 大學과 함께 역사속에 길이 빛나는 榮光을 創出해 나갑시다.

感謝합니다.

一九八七年 五月 二十七日

開校 35周年 祝詩

친구에게

나 기 칠
<詩人: 77年 國문과卒>

친구여,
나 오늘 편지를 쓰네
섬, 비에 젖은 새벽
책상 앞
작은 불 밝혀

우주 속의
무수한 별
별들 속의
지구
지구 속의
한반도

濟州道
아라
濟州大學校

또 한永遠
속의
이 공간

귀향살이땅
젖어 피 흘리던
그 돌무더기
돌던
밤의 무수한 꽃들

이제 그대
찬란한 예지의 갈 가네
뜨거운 고향의 문 여네

친구여,
그 광장에서
길에서
계단에서

어둠 부수는
그대 헬머소리
맥박소리
발자국소리

밤 밝혀
더욱 견강해 지는
거룩한 불꽃
지키는,
自由의 衛士여

이제 점점
차오르는,
한반도를 향하는
영웅한
광채 하나

나 오늘
새벽의 기슭
책상 앞
작은 불 밝혀

그대 등 뒤
희한 트럼펫소리들
들린다

찬란한 예지의 갈 뜨거운 고향의 문여네



△가자! 대동의 합성으로

사진: 강근배 記者 (MINOLTA 35mm SLR, 50mm F11, 1/1백 25)

祝創刊!

외국어 교육 30년의 (주)시사영어사가
時事英語研究, 英語界에 이어 드리는
종합 日本語 학습지

月刊時事日語

※ (주)시사영어사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월간지는 時事英語研究·英語世界 그리고 月刊時事日語입니다. 구입시 유시상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月刊時事日語는 30년간 외국어 교육의 외길을 걸으며 축적한 know-how와 경험을 살려 정성껏 만든 국내 최고의 日本語 학습지임을 자부합니다.
月刊時事日語는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日語학습의 새로운 학습체제를 개발하였으며 고도 정보화 시대의 지성인에게 알찬 정보와 폭넓은 지식을 제공합니다.
月刊時事日語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他 日本語 잡지와는 기피, 내용, 구성면에서 전혀 다른 참신하고 독특한 日本語 잡지입니다.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주)시사영어사

정기구독 문의: 서울 265 0509 266 9936 735 5064 266 4219 277 2124 부산 802 7435 대구 45 8890 대전 283 9885 광주 22 2376 전주 84 5828 인천 427 6557 수원 34 0721 의정부 44 1594 성남 49 5944 강릉 42 7376 춘천 52 5134 원주 45 6542 청주 53 5257 제주 23 1844

2대 特別企画

日本 國際國家化의 시나리오
「黒字동물」 일본의 세가지 未來像
日本은 香港·伊太利가 되라!
일본인이 본 한국경제
冒険的成長政策の奇跡的成功・ケンチャンダの思想

6월호

5월 28일 발간
정가: 3,300원

日本語學習大講座

초급자를 위한 일어강좌
일본어 첫걸음(제1회) - 김덕자
文法策 日本語の發想法
외워두면 편리한 いろは歌
일본어 한자 읽기를 마스터하는 비결
중급 일본어 강좌
알아두면 이로운 이럴만 저럴만 - 김우연
日本語らしい日本語の表現研究 - 민성홍
나의 日本語 능력은? 早稲田大學 田嶋 出題
外国人學生用 日本語
응용 일본어 강좌
비즈니스를 위한 商用便紙 - 장계성

정기구독자 신청접수중!

月刊時事日語
정기구독자를 위한 특별한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문학선 II

「國圖」의 작가 川端康成 그의 생애와 작품
일본 현대문학선(제1회)
道原 三郎 勇ある言葉 용기있는 만·역자 신영연

특집

① 한국인이 본 일본 - 李 勇
한국의 영향을 모르는 일본학자들
② 미국인이 본 일본 - Edwin O. Reischauer
질단의 규범이 모든 것을 지배
③ 프랑스인이 본 일본 - Paul Bonnet
계약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사회

社説

신록처럼 푸른 지성을 —개교 35주년에 부쳐

개교 35주년을 기념하는 제대인들의 축제를 낳아 준 요로 지는 자연히 축하하는 듯하다. 한라산 기슭의 오월의 신록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젊은 지성을 상징하듯 마냥 푸르거니와, 저 신록이 활포의 대지를 푸르게 하듯 진리와 생명의 푸른 빛이 발아송이의 현실을 푸른 현실로 바꾸고, 저 빛나는 오월의 태양처럼 이곳 아래에서 떠오르는 정의 불빛이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밝혀 주기를 우리들은 기원한다.

이제 개교 35주년과 함께 창간33주년을 맞는 제대신문은 지난 33년을 뒤로한 시점에서 현재의 우리들을 새로이 바라보면서, 기원과 함께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지면서 스스로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들 제대인 한사람 한사람이 한그루의 푸른 지성과 나무가 되어 활포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자. 뿌리내린 지성의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그곳으로부터 자양분을 끌어내어 밝은 지성의 푸르름으로 피어나는 삶이 있는 생명의 나무가 되자.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암암치럼 가혹할지라도 암암을 뚫는 강인한 뿌리를 그곳에 내렸을 때, 진실과 생명의 나무가 더 깊은 푸르름으로 피어나는 것을 확신하자. 우리가 개개의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뜻깊은 한그루의 나무들로 자라날 때, 우리의 전 현실은 마침내 푸르름과 아름다움으로 변모될 것이다.

지난 35년간 제주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성장한 제대인들이 지금은 어느 현실에서 어떤 나무로 서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캠퍼스를 더욱 더 생기있게 가꾸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더불어 진 지성의 나무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푸른 그늘을 드리워야 한다. 그런 때 이 나무는 단순히 물과 거름만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이 나무는 정신의 활력으로 성장한다.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만으로 결코 살아 있는 푸른 지성의 나무가 되지 못한다. 살아있는 지식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만을 공급해 주어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에다 생명을 부여해서 살아 있는 지식을 주었을 때, 비로소 생명의 푸른 나무를 키우게 된다.

살아 있는 지식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과 행위를 통하여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현실에 작용하는 지식이다. 자연현실에 대한 아무런 예측과 변화를 주지 못하는 과학적 지식은 허구일 뿐이요, 사회현실과 정신현실에 아무런 관심과 상상을 가져 오지 못하는 정신과학의 지식은 책상 위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이 이러한 지식으로만 단련될 때 결코 생명을 지니는 지성은 자라나지 않는다.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실천하지 않는 지식의 길은 피와 살이 없는 뼈다귀같은 허구이기에, 현실을 뼈의 견해같은 폐허로 만들 뿐이다. 이 폐허에서는 지성을 가장한, 말과 비틀거리고 외소한, 현실에 기생하고자 하는 이기적 성향만이 무성하게 자라날 뿐이다.

대학의 내실화란 대학의 생명화요, 대학의 생명화는 바로 지식의 생명화이다. 그렇지만 말뿐인 지식, 그럴듯하게 체계화된 지식, 자신의 삶과 피 속에서 자라나는 지식이 아닌, 옷자림처럼 차려입은 지식들은 진실로 살아 있는 대학의 풍토를 만들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세월동안의 우리 대학들의 상처와 아픔을 되새기면서 대학의 생명화의 길로 출기차게 걸어가 진실과 생명의 활기에 닿아, 그곳에서 길어 올린 물로 푸른 지성의 나무를 키우는 정당으로 우리들의 캠퍼스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대학이 자유의 정당, 문화의 정당, 학문의 정당으로, 푸른 지성이 솟아는 한라산 기슭의 빠르나수스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35주년의 개교기념일을 맞이한다.

濟大漫評



아하! 축제...

I. 프롤로그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제학자들이 경제 문제를 풀기 나갔을 때 새로운 이론의 적용을 싫어하거나 새로운 이론의 적용을 해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낡은 이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같은 소박한 논거를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비평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새로운 문학이론이나 비평이론은 문학연구나 비평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요청되는 것이므로 사실 문학은 연구하는 사람이나 비평가들은 새로운 이론의 적용을 꺼리고 낡은 이론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낡은 이론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다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낡은 이론 또는 새로운 이론의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제의 연구나 비평에 적용하려는 태도일 것이다.

현대문학 이론은 19세기 말 그것에 비해 철저하고 전문적이어서 단순한 이론의 차이를 넘어서는 다양한 성격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전도를 파악하려면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발생적 측면과 성격적 측면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II.發生的 側面

엘루드 르네 입쉬와 D.W. 포케마가 공저한 『Theories of Literature in the Twentieth Century』에 의하면 문학이론은 문학창작의 유형 사조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들면 고전주의 문학이론은 그 시대에 유행했던 희곡이나 서사시를 일반화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비평에 있어서의 문예적 방법의 남남주의의 문학의 소재인 문예적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받아 대두된 것이다. 그리고 실리학적 방법은 실리학적 사조의 유행에 따라, 러시아에서 발생한 형식주의는 미대파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각각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학이론의 발생이 꼭 이렇게 발생론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즉 문학이론의 발생은, 그것이 특정한 새로운 경향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과학과 사회의 새로운 발전과도 관련되어 있다. 예를들면, 실리학적 방법은 실리학적 사조의 유행을 받았고 마르크스 문학비평은 러시아의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적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 문학의 구조적인 측면을 해명하려는 연구 방법은 형태심리학에 자극을 받아 체계화된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형식주의는 아랍스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언어학의 새로운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현대문학이론은 문학창작의 유형 사조와 관련되어 나타난 것도 있고 그 시대의 과학과 사회의 새로운 발전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도 있다. 물론 이 두 경우를 절충한 형태로 나타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문학이론을 이차적인 발생론으로 바라보는 태도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현

대문학 이론을 발생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 이론의 면모가 분명히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우리는 이론이 지닌 장점을 추출하는 데에 있어서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결국 좁은 시각에서만 장점을 인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현대문학 이론의 발생적 측면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중에 비트겐슈타인적인 개념이 있다. 조지 와트슨은 예술의 정의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에 선

다고 그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표현의 생명은 '표현의 사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용은 어떠한 상황 안에서의 사용이며 이상함은 그사회의 '살의 양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문학 텍스트의 '가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파악되는 것인가, 문학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그것은 글방 '가족' 속에 포함되는 것인가 등의 의문에 부딪치게 된다. 현대문학이론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표현의 생명은 '표현의 사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용은 어떠한 상황 안에서의 사용이며 이상함은 그사회의 '살의 양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문학 텍스트의 '가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파악되는 것인가, 문학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그것은 글방 '가족' 속에 포함되는 것인가 등의 의문에 부딪치게 된다.

現代文學 理論의 二側面

—發生的 側面과 性格의 側面—



金 昶 澤
人文大助教授·현대문학

성 이론의 결정적인 근거는 문학의 개념이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이에 따르는 문화적 관습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 이론은 이러한 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III. 性格의 側面

현대문학 이론의 성격은 대략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현대문학 이론은 그 자체가 정교하고 견고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이전의 문학이론이 단순한 비평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한 비평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현대문학 이론은 인접 학문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인접 학문들은 현상학, 심리학, 해석학, 언어학, 인류학, 기호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인접 학문들이 현대문학 이론을 전문화시키는 촉진제의 역할을 해왔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셋째, 현대문학 이론은 처음에는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I.A. 리차즈가 문예비평에 실리학적 방법을 적용한 것은 영국 중심의 문학 전통에



에 이른다. 프랑스에서는 구조주의 문학이론이 발생했다. 폴랑 바르트의 문학 연구는 테비스트로스의 구조 인유학과 메를로 폰티의 지각론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폴랑 바르트는 앞으로의 문학연구가 문학을 체계화하는 작업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문학 연구는 의미의 구성 (construction)과 관계 (relation)를 체계화시키는 작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문학 작품은 닫힌 문학사에서 다루는 원인의 결

점에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형식주의는 미국의 신비평과도 관련을 맺으며 작품의 내재적 측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르네 윌렉은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비평가이다.

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은 오랫동안 매우 중심적인 교조적인 내용이 많이 배제되면서 소위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우는 푸카치, 발터 벤야민, 아도르노 등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비평으로 전환되는데 그 내용도 통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독일의 수용미학 (수용이론)이 미국의 웨인 C. 부스 등과 프랑스의 주베르, 폴랑 바르트 등에 의해 확대 심화되고 있는 것이나 정신분석학과 구조주의의 가라강 등에 의해 결합되고 있는 것도 현대문학 이론이 통합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임을 말해 주는 예들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대문학 이론은 그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추상적이고 난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 이전의 문학이론이 비교적 명료한 기존 의미 영역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대문학 이론은 유익적인 느낌마저 들 정도로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이러한 점은 용어의 사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가령, '구조' (Structure)라는 용어의 의미는 대체로 전체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에서의有機的 관계를 나타내는 범위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푸카치, 로프스키의 구조 개념은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그가 말하

는 구조 개념은 상호 모순되고 대립되는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며 이것을 그는 개성적 요소라고 설명한다. 또 그의 구조 개념은 문화적 현상의 구조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술중에서도 특히 문학에 있어서의 개별적인 구조들은 고유한 구조들이면서도 문화적 현상의 구조들과 상호 집속을 통해 발전해 나가면서 서로 접근되거나 분리되기도 하고 침투되기도 한다. 즉 전체구조 (The whole structure)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구조 (예술구조)는 이처럼 문화적 현상의 구조를 포함하는 커다란 질서와 연관되어 있다.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개 인물·사건·배경등 작품의 내적인 요소들만을 들추어 내게 된다. 그러나 한 단락을 비평하고 아우스의 수용미학에서 사용된 '期待의地平' (Erwartungs horizon) 개념에 의하면 독자의 기대는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가 된다. 이 개념에 있어서의 '期待'는 실제의 독자가 지니는 기대이면서 동시에 말한다면 수용자 (독자·작가·비평가)가 지니고 있는 작품에 대한 관념, 바람, 편견 등을 다 망라한 것이다. 그리고地平은 그 기대의 범위를 가리킨다. 수용미학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期待의地平'의 전달·융합·재구성으로 독자의 기대가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내포 (connotation)와 외연 (denotation)이란 용어를, 논리와 이외의 분야에서는 함축적, 표시적인 의미로, 또는 주관적, 객관적인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문학과 이론에서는 내포를 상상개념으로, 외연을 사실개념으로 사용한다. 가령, '달' (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밤', '낭만적', '싸늘한', '사랑'등의 사고적 聯想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문학과 이론에서는 이처럼 '달'이란 개념 내용 이외의 것이 나타나는 것을 示義·隱義의 (connotative)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내포는 상상개념과 아울러 示義·隱義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IV. 에필로그

지금까지 현대문학 이론의 발생적 측면과 성격적 측면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현대문학 이론의 발생은 다 른시대의 문학이론에서 문화창작의 유형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형식주의는 미대파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현대문학 이론은 당대의 과학과 사회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실리학적 방법이 프로이트 심리학과 관련되는 점 만으로도 이것은 쉽게 확인된다.

현대문학 이론의 성격은 대략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첫째, 이론 자체가 정교하고 체계화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둘째, 인접학문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 셋째,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났다는 점, 넷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연결되는 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다섯째, 그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추상적이고 난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이다.

理論 자체는 정교·섬세

수용이론 '期待의地平' 개념에 의하면 독자기대가 곧 문학작품의 구성요소

하는 일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남남주의 작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지적하는 것 (pointing) 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거나 작품을 비평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작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家族類似性 (family-resemblance) 이론도 마찬가지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문장 (작품)들은 어떤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오직 家族類似의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통점을 찾으려 하지

서 시사를 받아 판단한 결과였다. 미국의 J.C. 덴셀 등이 신비평을 전개한 과정도 마찬가지로 독자성을 띠고 있다. 그는 미국 남부의 도시인 내시빌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에서 문학활동을 하면서 앨런 테이트, 로버트 크리엔, 클리프스 토크슨 등과 함께 『The Fugitive』라는 동인들의 작품을 내고 마침내 1941년에는 『The New Criticism』을 발간했던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형식주의가 발생했다. 1920년대 이전까지 러시아에서는 문학의 내용과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비평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1920년대초

파가 아니라, 사물을 포상하는 기호 (sign)로 설명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독일에서는 수용이론이 발생했다. 이것은 문예학에 현상학과 해석학의 방법이 적용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나중에는 수용미학으로 발전된다. 아우스로 대표되는 이 이론은 자연히 문학의 수용자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연구자 자신이 수용자일 수도 있다—텍스트의 분석에 필요한 언어학과 더불어 역사, 기호학, 해석학, 구조주의 등의 방법과도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반드시 역사적, 문화적, 상대성의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1920년대초

진정한 대화가 있는 교정 한권의 출판 위, 혼자만의 사색 또는 독서를 할 수 있는 한적한 벤치, 노가리 안주와 소주 그리고 담배가 있는 선술집, 땀에 흠뻑 젖어 공을 쫓아 걸주하는 운동장,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도서관과 연구실—지금 당신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장소가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한곳에 몰두할 수 있는 순수한 정열을 가진 젊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며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터발을 일구어 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터발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직은 기름지게 일구어지지 않았습니까? 초야는 바로 이러한 당신의 터발을 존중합니다. 그곳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수한 정열과 최선을 다하는 고귀한 방법들이 어려움으로 얹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터발은 바로 초야의 터발입니다.

기아산업

당신의 터발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현대국가와 人權保障



김 부 칸
社科大전장·법학

I. 서론

인간은 자유롭고도 존엄한 존재로 태어났다.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가장 소박하고도 근본적인 인간성의 의미를 간파한다면 그러한 삶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살아 있는 도인 노예의 삶에 다를 게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Rousseau가 말했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鐵籠 속에 갇히게 되는 운명을 맞고 모든 권리와 제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의 삶의 역사는 이러한封建的·專制的 권력의 억압과 차별에 대항하여人間性を 깨치고 스스로의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여 온 투쟁의 역사였고 이는 곧 민주主義의 역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민주主義의 그 이념적 기초를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민주主義,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국가의存立根柢를 두고 또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이러한 基本人權保障의 기초위에서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國家權力和 國家制度 그리고 憲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서는 결코 自己目的의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恣意의로 행사되고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國民에 대한 기본권의 보장이 그야말로 국가기관에 의한 통치작용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虛偽意識의 체계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많은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경찰관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과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재판 사태는 여러모로 衝擊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人權尊重의 이념과 法治主義原則이 보다 확고히 우리 사회에 뿌리를 박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삼 인권의 의미와 그 보장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로 한다.

II. 인권의 의미

人間인 人間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人權(Menschenrechte, human rights)이라고 한다. 이는 그리고 인

간이 자유로운 人格體(Person)로서 향유하는 필수불가결의 기본적 권리이다.

人權意識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차츰 강화되어 왔지만은 인간 본래부터 天賦不可讓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전제적 인권론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18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天賦人權 혹은 自然權(natural rights)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近代自然法思想의 공헌으로 평가되고 있는 美國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市民革命의 결정인 독립선언서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이러한 인간의 天賦不可讓의 권리가 선언되고 모든 정치체단결과 그 권력은 인간의 불멸의 自然權의 보존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된 바 있다.

오늘날 모든 민주主義 국가의 헌법이 인간존엄성의 존중이란 法理觀念을 최고의 가치로 해서 제정되고 인간의 보장을 필수적 요소로 규정하게 된 것은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근대헌법은 이와 함께 國家權力이立法·司法·行政權의 분립에 의하여 상호간에 억제와 균형을 취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基本人權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憲法(憲法)에서 규정되고 있는 인간의 권리는 보통 기본적 인권, 즉 기본권(Grundrechte)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前國家的의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의 기본권은 따라서 국가형성 이후에 비로소 부여된다고 보아지는 社會權의 基本權들과는 특이하게가 많은 한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더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의 기본권은 보통自由權의 基本權이라고 표현되

와서도 아직까지 自由權의 基本權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우울함을 금할 수 없게 된다.

물론 自由權의 基本權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보장이 최대의 과제이면서도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입수행과 평평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게 된다는 점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면서까지



국가권력이 행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全體主義를 표방하지 않는 한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과 기본권보장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점과 이를 벗어난 권력의 恣意의行使는 무엇보다도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國家權力이 어떻게 제한적으로 행사되느냐 하는 것과 人權保障과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보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상

III. 인권문제의 국제화

Lauterpacht의 말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의 보장은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있어서도 그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國際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로소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고 구체적인 형태로는 1945년에 國際聯合會를 창설하면서였다. 聯合憲章은 前文과 諸條項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에 관한 인류의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총회에서 世界人權宣言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연합이 인권문제에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시발점을 마련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연합의 하나의 행동기준으로 이용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1966년에 國際人權規約이 채택된 바 있다.

國際人權規約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諸權利에 관한 國際規約(A規約)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國際規約(B規約)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의 3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B규약에 의하면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규약에서 인정된 諸權利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規約上에 규정된 諸權利의 실현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立法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規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國際聯合會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에 의하여 채택된 유럽人權規約을 비롯하여 국제연합과 기타 국제기구 그리고 각국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人權保障에 관한 조약, 선언, 권고, 결의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國際人權憲典(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의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國際人權法이 국제법의 주요한 분야로 형성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특히 인권보장에 목적을 두고 창설된 여러 國際的 단체들이 각국의 인권보장의 상황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에 대하여 國際聯合會에서 制裁決議案을 통과시키고 여러 국가에서 制裁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이들에 의하여 거의 모든 제3세계 국가들이 人權保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共產主義 국가들처럼 全體主義의 통치가 행해지고 있는 국가의 인권상황은 재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國家主權의 원칙이나 국내법체질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가도 自國國民을 恣意의로 취급하거나 대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하는 관념은 더

이렇게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規範的 事實의 측면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국가의 헌법도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우리 헌법도 제9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제35조 1항에서 國民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그리고 基本人權保障이 국가의 최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國家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여러모로 회의적인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우선 基本人權保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있는 諸法律과 제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提示하는 것은 省略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형식적 존재가 아니라 그 실질적 운용과 실천과정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어떻게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법과 제도가 보다 완전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지만 —물론 이를 위하여도 부단히 애쓰고 있으면 안된다— 미흡한 가운데서도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노력하여 人權保障의 정신을 실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로운 사회를 힘써 확보하고자 하는 각오와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인간의 삶과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를 말미암아 저마다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또 남을 지배하려고 함으로써 인간의 존중과 인간간의 상호존중의 기본원리가 파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측면이 國家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데서 그 충격을 더하게 된다.

人權의 尊重이라고 하는 정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법과 제도의 미비는 우리 인간의 능력의 有限性에서 그 필연성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이러한 법과 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용하지 못하고 恣意의로 國家權力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는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와 다를 바 없게 되고 결국 헌법은 하나의 名目的인(nominal) 것이거나 意味論的인(semantic)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公權力이 발동되어야 하며 따라서 法的 평화 또는 法的 안정성이 법과 국가의 최대의 과제라고 주장하겠지마는 법이나 질서는 인권과 대립되는 법치치가 아니라 인권을 그 불가분의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존립의 조건이 규정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法秩序도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속할 수 있을 때 국민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될 것이며 정당한 법질서 또는 정당한 권력행사로서 시인될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價值相對

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規範的 事實의 측면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국가의 헌법도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우리 헌법도 제9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제35조 1항에서 國民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그리고 基本人權保障이 국가의 최대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國家의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여러모로 회의적인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우선 基本人權保障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있는 諸法律과 제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提示하는 것은 省略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형식적 존재가 아니라 그 실질적 운용과 실천과정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어떻게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법과 제도가 보다 완전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지만 —물론 이를 위하여도 부단히 애쓰고 있으면 안된다— 미흡한 가운데서도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노력하여 人權保障의 정신을 실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유로운 사회를 힘써 확보하고자 하는 각오와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인간의 삶과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를 말미암아 저마다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또 남을 지배하려고 함으로써 인간의 존중과 인간간의 상호존중의 기본원리가 파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측면이 國家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데서 그 충격을 더하게 된다.

人權의 尊重이라고 하는 정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법과 제도의 미비는 우리 인간의 능력의 有限性에서 그 필연성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이러한 법과 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용하지 못하고 恣意의로 國家權力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는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와 다를 바 없게 되고 결국 헌법은 하나의 名目的인(nominal) 것이거나 意味論的인(semantic)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公權力이 발동되어야 하며 따라서 法的 평화 또는 法的 안정성이 법과 국가의 최대의 과제라고 주장하겠지마는 법이나 질서는 인권과 대립되는 법치치가 아니라 인권을 그 불가분의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존립의 조건이 규정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法秩序도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존속할 수 있을 때 국민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될 것이며 정당한 법질서 또는 정당한 권력행사로서 시인될 수 없는 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價值相對

黑과 白에서 經濟發展과 民主化

西歐 諸國의 민주 정치 발전은 보르자치, 즉 시민계급이 주도한 경제 발전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시민계급은 그들이 확보한 경제적인 지위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그 때까지 극소수 특권계층에게만 주어졌던 정치 참여의 기회를 下向的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역사 발전의 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질적인 중요와 경제적인 자유 획득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有産階級이 정치적인 자유를 쟁취하려는 노력이 17세기말 영국의회에서의 whig黨(후일 自由黨으로 발전) 결성이었고, 또한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경제 발전에 따른 교육수준의 향상은 인간 존엄성의 신념과 기회균등의 사상을 담당한 상식적인 유포시키면서 정치적인 역할을 文明的인 현상으로 배척하는 時代思潮을 만들었고,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된 기계문명의 발전은 다수여론의 효과적인 수렴과 정책적 반영이라는 민주정치실현의 기술적인 역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발전이 정치 발전을 유도해 내었던 이같은 歷史的 先例들은 現下의 한국 사회 발전에 대한 우리의 부푼 기대와 허황한 좌절감을 배제시켜 주었다. 지난 20여년동안 우리가 이룩해 놓은 경제 성장의 속도는 인류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것이었고, 이러한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정치적 자유 획득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그 반면의 실패에 대한 우리의 좌절감 역시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孟子의 말마따나 <有恒産者必有恒心>하게 되리라 믿고 싶었던 것이고, <存在가 思维를 결정한다>는 K.Marx의 통쾌한 지적대로 물질적인 存在方式의 개선은 價值意識의 쇄신을 통한 政治行爲의 발전을 초래하리라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믿음은 역사발전의 또다른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앓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이 민주화 과정에 대해 順機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발전의 필연적 보편적 법칙은 결코 아니며, 정책입안자들의 의식수준과 意志如何에 따라서는 경제성장의 노력 자체가 민주화전에 逆機能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한가지 예를 든다면, 경제성장 욕구의 왜곡된 고강화는, 신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발전의 일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發想法을 낳을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경제체질주의의 발상법은, 수출 상품의 國際競爭力 제고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勤勞를 희생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낳을 수 있고, 국가 목적에 의한 경제활동의 획일적인 통제와 용이한 대기업을 중점 육성시키는 정책은 좀더 인간적이고 개성적인 中小企業 활동을 위축시킬 수가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질서 유지에 최우선시하는 이론은 사회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구실로 자유롭고 활발한 비판행위를 억압시킬 수가 있다. 또한 경제성장이라는 지상목표가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사회적 迷念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여 갖가지 형태의 非理와 無理를 자행케 하며, 그로 인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한 致富行爲가 만연되고, 경제적인 疏外階層에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심어줌으로써 사회 전반의 갈등과 위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세열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허영과 사치의 醜態이 되고 만다.

근자에 어느 해운업체 재벌회사가 장마철 중대형 경제사업 철의로 구축되고 온 국민의 빚바치는 지탄을 받았을 때, 그의 높은 머리에는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하도록 다그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었다고 하는데, 이 폭탄탄 아들은 결국 자신의 비합리한 능력과 지나친 성취욕구가 화근이 되어 파멸을 자초한 셈이다. 부자집이 되고도 모두 행복한 것이 아니듯이 부자나라라고도 모두 행복한 나라임은 아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상태를 벗어난지 오래이며 진실로 인간다운 생활과 진실로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냉정히 반성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진정한 相互信賴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그리워지고, 우리가 애써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중요의 의미를 곰곰히 따져보다 보다 아름다운 삶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싶은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리하여 <存在가 思维를 결정한다>는 Marx의인 환경결정론의 차원을 벗어나서 <思维가 存在를 결정한다>는 Hegel의인 主觀主義의 차원에서도 살아보고 싶은 문화적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한 돈벌고 겉모양내는 데에만 열중할 때, 세계인들은 우리를 머리는 텅 비고 걸단 번지르르한 淺薄한 莽黨과도 비웃을 것이 아닌가. <Y>

主觀에 입각해 있고 個人的, 社會의 신념과 가치의 다원적 조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국가가 인간과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의 보장을 하나의 절대적인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과 국가의 보유자로서의 국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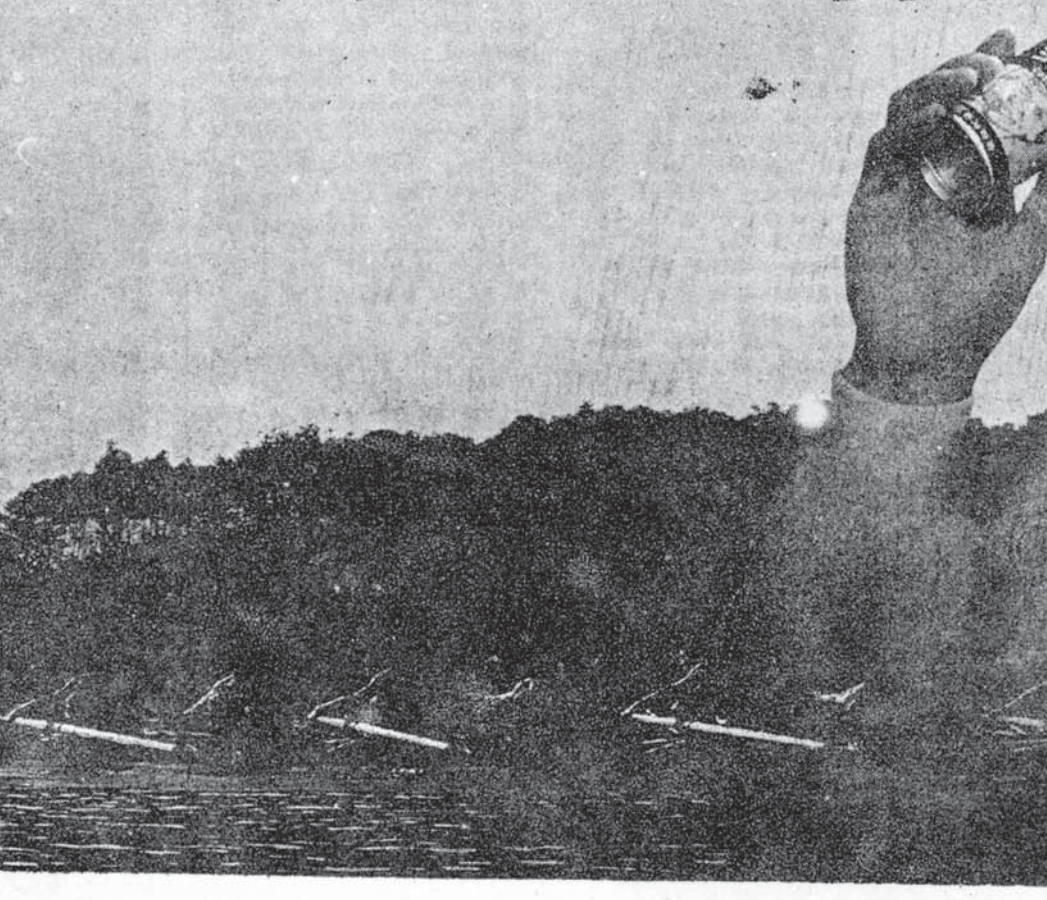
합상 主觀의인 입장에서 국가 권력의 恣意의 發動에 대하여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스스로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든 인권의 보장이든 가만히 있는 국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모두 받

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소중한 열매이다. 결국 인권

문제는 우리 자신의 신념과 의지와 용기의 문제인 것이다.

공감하는 맛, 가슴 깊숙한 향기-맥스웰 캔커피



물살을 가르며 상쾌함 그대로 가슴 깊숙이 적셔주는 공감의 맛이 있다. 맥스웰 캔커피— 그 깊고 산뜻한 맛과 향기는 커피유로만의 색다른 청량감을 드립니다. 맥스웰 캔커피 맥스웰 캔커피에 기초해, 개성에 따라 두가지 다른 맛을 즐겨보십시오.



評論부문 가작

I. 머리말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現代文學」에 金顯承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한 吳圭原은 韓國현대시의 모더니즘 계열에 속하여 言語實驗을 계속하고 있는 시인 중 한 사람이다. 韓國의 현대시는 4.19 이후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경향은 傳統詩와 實驗詩로 크게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전보다 심하게 나타난다는 양상은 전면을 통한 현실비판적 특징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抒情과 言語實驗이 융합되는 것, 전통적인 抒情과 현실참여의 태도가 결합되는 것, 言語實驗과 現實意識이 결합되는 것 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吳圭原은 위의 세 가지 중 세 번째 부류에 속한다. 즉, 모더니즘의 특징인 '언어실험'이 현실의식과 결합하여 實驗詩로서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의식은 일상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吳圭原은 일상의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직관력과 통찰력을 지녔던 것으로 여겨지며, 詩의 감수성 또한 예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실의식을 지닌 작가는 시대성이나 사회성이나 하는 것 외에도 실존적으로 접근하여 있는 성질의 것은 日常이 된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소재를 택하고 일상에서 쓰이는 平易語로써 그들의 작품은 꾸며진다. 吳圭原도 現實意識을 지닌 작가로서 이러한 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平易語로서의 詩語는 쉬워졌다고 하지만 시 자체가 쉬워진 것은 아니다. 물론 소재 역시 일상에서 취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吳圭原의 시는 詩語에 비해 그 의미는 보다 심층적이다. 즉,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세계, 혹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미처 활용해 볼 수 없었던 세계가 암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그의 표현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吳圭原 시인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 및 모더니즘 계통의 그의 표현방식을 검토하고자 할 따름이다.

II. 몸 말

1) 새로움에 대한 인식

새롭다는 판단을 내리는 때에는 특정한 비교기준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준점이 없으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일은 무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의는 내리는 일인 어떠한 특정한 비교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새로움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讀者가 吳圭原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吳圭原 자신이 새로운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써의 의미를 지닌다.

새롭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두렵지 않은 낯설음을 지닌 유쾌한 낯에 그러니까 용납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반응. <작품에 3개의 노트> 중

이 글은 吳圭原의 시론집 「언어 실험」 중에서 아포리즘 형식으로 씌운 글이다. 이 글에서 吳圭原이 새로움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느정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물론 이 글에서 특정한 기준은 설정되어있지 않다. 그것은 이 글이 특정한 것에 비해 새로움을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의의 개념으로서 새로움에 대한 인식하려는 글의 성격 때문이다.

정의 내리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조금은 낯다른 기질이 있어 보이지만 그럴싸하다는 인상은 지워지지 않는다.

<낯설음>이란 새로움을 부여하는 요소이다. 또한 <낯설음>은 두려움과 두렵지 않은 것과 양립하는 감정의 대립이다. 이는 새로움에 대한 인식이다. <낯설음>의 상태를 보고서 생기는 것만은 틀림없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두렵지 않은 것의 차이에 있다.

吳圭原은 현명하게도 양극단의 낯설음 중 <두렵지 않은>의 상태를 택하였다. 吳圭原이 <두렵지 않은>을 택함으로써 자신에게나 기존의 양식으로부터는 <유쾌한 낯>이 될 수 있었고 그 3차, 혹은 독자로부터는 <용납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반응>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두렵지 않은 것은 시에서의 難解性을 배제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吳圭原은 시가 난해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면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그것은 <두렵지 않은>의 상태를 고려해서 시의 외형을 수위하게 했다는 의미이고 새롭다는, <낯설음>의 상태는 시 자체적인 문제로 해결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같은 내용은 과거 모더니스트와 비교될 수 있는 것들

이다. 일부에게는 하겠지만, 新詩에 대한 집착으로 대부분 그들의 시는 난해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막연한 신기미의 집착이 더구나 "기존 언어의 파괴작업" 속에 놓임으로 진정 풀기 힘든 문구가 되어버렸던 예는 허다하다. 이상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새로움에 대해서 吳圭原은 직관적이고 타당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은 그의 詩作생활에 활력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하면 보다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그의 글 속에는 있다.

2) 表現方式

대부분의 시인들은 자신의 詩 속에서 독자와 혹은 상반되는 모든 것과 화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려고 하거나 또는 화합과 화해의 양상이 시인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세속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기능적으로 잘 조화시켜 그 화합과 화해를 꾀하고 있다. 吳圭原의

한 것이라 보아진다. 吳圭原의 표현방식은 앞서서 약간 언급되었듯이 모더니즘이나 초현실주의 특징인 "기존 언어의 파괴작업"을 통한 데포르마시옹(변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의 시작태도인 자기방기의 화해양식과 합치하여 체계화된다.

그 구체적인 표현양상은 解辭의 인연과 虛辭의 인연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이 둘만으로는 조화를 잘 이룰 수 없어 機智와 奇想의 사용으로 시인은 그 효과를 기능적으로 결합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표현양상을 吳圭原의 시에 어떻게 구성시키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解辭의 표현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해사적인 표현양식이란 맑은 기존의 文法構造를 해체, 변형하여 재조직·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방식은 언어의 질서를 새로이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상황의 本質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시인 나름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기초는 자유, 시대라는 말을 팔아서 여태껏의 옷을 벗기는 자유, 꿈을 팔아서 편안을 사는 자유, 편한 것이 좋아 편한 것을 좋아하는 자유, 쓴 것보다 달콤한 게 역시 달콤한 자유, 쓴 것도 커피 정도면 알맞게 맛있는 맛의 자유.

<이 시대의 純詩論> 중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의 자유가 필요되면서 작품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한 잎의 여자」와 解辭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大異小同하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 표현이 거의 비슷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이 작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吳圭原의 機智에 차 있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吳圭原에 의해 虛化되고 또한 변질되어 나타난다. 윤리적인 면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자유라는 개념 속에서 변모된 모습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이것은 자아의 완성이 아니라, 효용의 질감을 높이며 노

나는 표현방식 중 虛辭의 인연을 다뤄보자. 우선 虛辭의 표현방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 허사적인 표현방식은 同語反覆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자기 잘못하면 <말장난>이나 <빈말>이 되어버릴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표현은 자기 상상력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위의 사실은 다음 제시되는 시를 검토해 볼 때 단적인 증거가 가능하다.

어둠이 내로 왔, 내 귀 앞 내 눈 앞에 있다. 어둠은 역시 자세히 봐도 어둠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 장난이라고 나를 욕한다. 그러나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둠이다. 어둠을 자세히 보면 어둠의 코드 역시 어둠이고 눈도 귀도 어둠이다.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은 스스로 어둠이 되는 길이라 하기도 한다.

吳圭原 詩연구

“破壞 그 새로움의 創造”

김 창

호<국어국문학과 4년>



입선 소감



밤에만 글을 쓰는 이들에게 나는, 글이 도대체 무엇인가 묻고 싶지만, 그러면 다시 내게 되돌아 올 그 질문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써오던 원고를 정리하며, 이름표를 꼬박 새고, 꾸며이며 즐겼던 정신은, 망설이면서도, 신문사를 찾았다. 막상 상을 받기는 했어도 낭패감은 왜 이리도 큰지? 통상적으로나마 기쁘다는 소리 한마디는 해야하는데 막상 하려해도 쉽게 입에서는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에 할 말이 있다면 뽑아주신 걸 책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 뿐이다. 백록문학을 주최하신 신문사측에게 감사드리고 심사할 맡으셨던 교수님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경우도 마찬가지다. 詩에는 아무 것도 없다. 詩에는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에 남아있는 우리의 생은 우리와 함께 말한다. 조금도 근사하지 않게, 믿고 싶지 않게, 조금도 근사하지 않게. <龍山에서> 중

이 시는 吳圭原이 지닌 세속의 이질적인 요소가 소재로 되어 있다. 어느 시인이든 자신의 창작행위, 혹은 詩 그 자체에 대해 고백적인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시는 吳圭原에게 고백적인 요소로서는 그와는 眞實의인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다. 즉, 쓰는 행위가 주는 정서적 질감은 吳圭原에게 직접 삶(生)으로 와 부딪힌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조금도 근사하지 않은 삶

정말로 나는 한 女子를 사랑했다, 女子만을 가진 女子, 女子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안가진 女子, 女子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女子, 눈물같은 女子, 슬픔같은 女子, 病身같은 女子, 詩集같은 女子, 그러나 누구나 영원히 가질 수 없는 女子, 그래서 불행한 女子, 그러나 영원히 나 혼자 가지는 女子, 물주머니를 그림자같은 슬픈 女子.

<한 잎의 여자> 중 解辭의 표현이 吳圭原의 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로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것은 압축과 긴장이 시에서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이 吳圭原의 「한 잎의 여자」에 와서는 강그리 무너져 버리기

들을 통해 파악을 얻는 예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억압을 수락하고 오히려 그 억압 속에서 편안함을 얻어내며 일시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吳圭原의 자유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吳圭原의 자유에 믿음에서 얻는 편안함은 吳圭原에 의해 虛化되고 또한 통렬한 풍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吳圭原은 解辭의 표현양식과 더불어 풍자성을 일깨워주고 그 자신의 기질을 발휘하여 이미 자신으로부터 회화된 세계 안에서 반역적 비평의 상태를 유발하게 하고 있다. 현우사 약방 앞길 여자 배주장수 문주머니로 찾아드는 비 방울장수 여자 젖가슴으로 찾아드는 비 사과장수 남자 가래기로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은 뛰어들어 해도 어둠은 어둠은 어둠이라는 사실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람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으로 뭉친 어둠은 어둠이 아닌 날 봐도 역시 어둠이다. 어둠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만약 어둠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면

빈말되기 쉬운 표현방식 기능적 조화시켜

“기존 언어의 파괴작업” 통한 변형 토대로 自己放棄의 태도와 합치, 표현방식체계화 機智와 奇想, 화합위한 기능적 요소로 수용

일 뿐이다. 이러한 삶은 독자나 시인 자신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믿어야 하는 사실처럼 吳圭原은 서슴없이 확신을 차 있다. 이 시에서 吳圭原은 眞實의인 요소를 자신으로부터 발견하게 되고,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이 이질적인 정서적 질감을 동일화시키고 있다.

吳圭原 자신이 이질적인 요소를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詩作태도가 自己放棄의 인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질적인 요소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정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自己放棄의 태도이다. 그러면 자기방기는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自己放棄란 함은 화해나 일탈을 수 없는 세계에 대해 全無으로서의 내면적 고독과 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이질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정화시킬 수 있는 화해의 양식으로 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自己放棄태도는 엄밀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히려 자기방기는 常義의인 삶에 더 건넌다는 열정이며, 또한 사람으로부터 연유

때문이다. 詩語에 있어서도 긴밀한 상관관계, 혹은 통질성을 지닌 상태로 집약할 때의 시란을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吳圭原의 「한 잎의 여자」라는 시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 시에서 쉽게 눈에 띄는 어휘는 「여자」이다. 우리의 주변에서 여자인 어휘는 수습에 여기하여 눈감고자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자를 소재로 시를 만들려면 보다 참신한 이미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들이 궁극적인 하나의 이미지로 집약될 때 비로소 좋은 시라는 이름이 붙게 된다. 그러나, 이 이름은 이미지의 단면들로서 산만한 女子의 속성을 찾아 섬기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긴축과 집약에 상반되는 점에서 상반한 파격을 수반한다. 이러한 파격에서 吳圭原의 시의 표현방식을 解辭의이라고 했다.

吳圭原의 시에 또 다른 일면은 解辭의인 표현과 더불어 기이하게 차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그 양면성이라는 것은 다음에 언급되는 吳圭原의 시에서 機智와 奇想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吳圭原의 시에 나타

찾아드는 비 그러나 슬라브 지붕 밑의 시간은 못 지치고 슬라브 지붕 페인트란 적시는 비 서울특별시 開峰洞으로 편입되지 못한 京畿道 始興郡 西面 光明里의 실록기록치는 입술 언저리에 붙어있는 잡들의 좀 몇 개만 버려놓는 비 <개봉동의 비>全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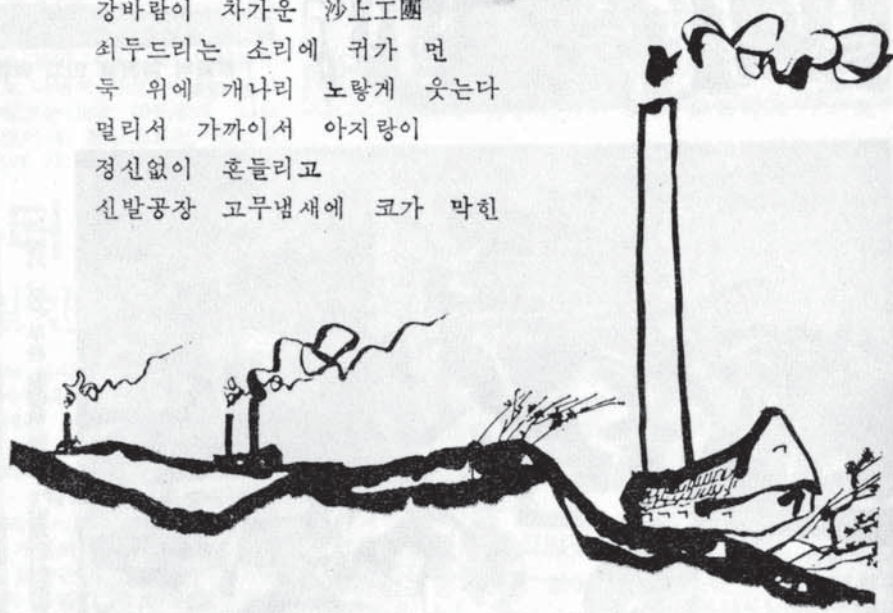
이 시는 解辭의 표현양식 機智와 奇想이 모두 사용된 예이다. 비가 되풀이되면서 시장바닥에 특색거리리는 강남몰의 모습을 적어놓고 시가지 변두리에 아루렁거니우는 풀포기를 버려놓는다. <그러나 슬라브 지붕 밑의 시간은 못 지치고> 슬라브 지붕 페인트란 적시는 비>이와같은 형간 사이사이에 機智와 奇想의 사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技法上的 兩面性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곧 吳圭原 시에 독특한 의의를 지니게 한다. 그 양면성이라는 것은 다음에 언급되는 吳圭原의 시에서 機智와 奇想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吳圭原의 시에 나타

詩부문 가작

沙上工團의 개나리

이 성 준<국어국문학과 3년>

강바람이 차가운 沙上工團
최두리는 소리에 귀가 먼
독 위에 개나리 노랗게 웃는다
멀리서 가까이서 아저랑이
정신없이 흔들리고
신발공장 고무냄새에 코가 막힌



독 위에 개나리 노랗게 웃는다
검은 연기 주근깨로 얼굴에 박혀도
입을 벌려 노랗게 노랗게
온몸으로 웃는다
봄은 아픈 곳을 고치며 사랑으로 온다고

沙上工團: 부산 북구 사상일대의 공업단지

뽕고나서

제대신문사에서 보내온 제 7회 백록문학상의 시부문 응모작은 모두 49편 (16명)이었다. 응모자도 응모된 작품도 그리고 작품의 수준도, 한 마디로 '흔한' 이었다. 우리는 이 작품들을 열 번도 더 읽었다. 어떤 작품이라도 거의 갈라치면 작품수가 많아지면 될거기에 열을 올리거나 마련이고 그래서 수준급의 작품들을 예선한 뒤 그 작품들을 대상으로 당선작을 뽑아내는 일이 순서가 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해서 가작이라도 내야 했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

심사위원도 못되면서 떨어진 작품들을 기대해 온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상이 자랑스럽고 당선에 영예스러우려면 그것은 여러 면에 책임이 있는 것이며 아울러 그렇게만 들어가야 한다. 시쓰기는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다. 그것은 자기 혼자서 이룩해가는 절대독학한 작업 일뿐. 과연 시쓰기에 뜻을 둔 뛰어난 학생들이 쏟아져나와 이 이름표를 바랄만 붙여대는 활판한 아라비에 찬란한 재래문학을 꽃피워줄 날은 없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입선 소감



부끄럽다. 나의 詩 아닌 詩를 남에게 보였다는 게.

몇대까지 없이 차원에서 받기해 버린 물건을 부끄러워했던 기억보다 더 큰 부끄러움에 낯이 뜨겁다. 그 정도의 부끄러움이야 꾸며내 손을 놓고 가려면 그만이지 만 이 부끄러움은 가릴 수조차 없으니...

詩도 아닌 詩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부끄러움을 알고 싶다는 詩를 쓰라는 재촉이겠지. 그런 심사위원들의 재촉을 받으며, 내게 재촉을 해 주신 그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너져버린 때, 포기하려 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독여 주신 國문과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詩다운 詩를 써서 그 분들께 보답하리다.

詩쓰기는 자기 절망에서 꿈꾸는 일
7천여 학생 가운데 평생 시쓰기에 뜻을 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어야 좋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를 읽고 시를 사랑하고 시를 쓰는 일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 이같은 일들이야말로 학문탐구와 함께 젊은 날의 고뇌와 번민을, 열정과 사랑을, 자기의 삶을 보다 더 넓게하게 확장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속된 말로 삼시 열세라든 그것은 전혀 우리가 탓이 아니다. 심사위원이 마땅히 할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탓이다. 뛰어난 작품을 쓰고 후고하고 그래서 뛰어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뛰어난

평론의 가작을 내기로 했다. 「沙上工團의 개나리」(이성준·국문과3)와 「비」(김수영·일문과2)가 그것이다. 두 편 모두 사상(思想)을 보는 따뜻한 시선을 사기로 했다. 아직 시쓰는 일이 서툴러 보여 우리가 손을 댔을 줄은 알겠지. 평범한 충고를 구해야 하려면 사물을 보는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목소리를 갖추어야 할 줄임이다. 그러므로 시쓰기는 자기 절망에서 꿈꾸는 일이 되어야 한다.

강 통 율
(인문대교수·시인)
문 충 성
(인문대교수·시인)

다시 작품으로 들어가서, 말 장난한다고 비난받는 吳圭原은 쉽게 주저앉으려는 기색이 없다. 그것은 吳圭原이 말하는 어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둠의 이미지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밤의 도래로 인한 어둠어둠한 氣運으로서의 어둠이 아닌 까닭이다. 그래서 다시 <어둠은 어둠>이라고 하고 강조되고 또한 어둠은 어둠이라는 표현 사이에 기능적으로 <자세히 봐도 역시>라는 삽입구를 잘 조화시켜 말장난이 아닐까 강조하게 된다. 이후 吳圭原은 어둠의 정체를 확인해 보려는 의지에서 어둠을 자세히 보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어두운 게 어둠이라는 사실>을 말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어두운 게 어둠>이라는 대칭제로 吳圭原의 눈에 비치는 것들은 모두 어둠이 되고간다. 미의 화선처럼 아름답기 그지없는 꽃은, 관음 속에 상주해 있으면서 전혀 명암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도 청

춘도, 그리고, 어둠과는 성격이 아주 다른 빛의 대명사적인 태양까지도 어둠 앞에 보아서는 어둠이 되고가는 것이다. 어두운게 어둠이므로 어둠이 보면 역시 밝기도 아닌 이러한 시인의 깊은 관찰은 끝내 말장난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吳圭原은 극단적인 양보를 감행하게 된다. 그것은 어두운 게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 어두운 것이라면>하고 가정하여 출발하는 예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입장을 바꿔 살펴보면 시인의 의도는 어대 더했는가? 그것은 화해와 화합을 바라는 의도이다.

III. 맺음말

세월, 그의 표현양상은 解辭의 인연과 虛辭의 인연으로 나타나며, 이에 機智와 奇想의 사용을 결하여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성격이 吳圭原의 시에 나타난 표현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까닭으로 여러 작품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고로 그의 사상이라는 지 시에서의 표출적인 주제라든지 그가 지닌 현실의식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이 되었다.

대표이사 감 재 업

● 본 사 : T590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1280번지
☎(代) ②6111 FAX ③8700

● 서울지사 : T110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가든타워 B/D1402호
☎ 765-3040 763-3480
FAX 744-5150

